

폭염 장기화 대비 ‘폭염 극복 물품’ 추가 지원해

대전 대덕구는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지역 내 폭염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쿨매트·넥쿨러·부채·양심양산 등 ‘폭염 극복 물품’을 추가 배부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에도 낮 기온이 평년을 웃도는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는 사전 조사 결과에 따라 냉방기기가 없는 취약 어르신과 장시간 실외 활동을 하는 주민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정해 폭염 예방에 나선다.

특히 쿨매트와 넥쿨러는 에어컨 또는 선풍기가 없는 취약 어르신 약 370명에게 우선 전달하고, 양심양산을 150개를 추가 확보해 대여소를 확충·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부채는 폭염 행동요령을 인쇄해 ‘대덕거리 페스티벌’ 행사장 비치하고, 대덕구 지역 자율방재단의 캠페인을 통해 약 3000명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배부는 8월 초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마련했으며, 이달 초까지 신속 배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폭염 극복 물품 지원과 행동요령 홍보,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곤충양돈사료’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을 잡는다

충북농업기술원은 4일 전북 익산에서 자체 개발한 ‘곤충 기반 양돈사료’ 납품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보급을 시작했다.

양돈 농가는 경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분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kg 미만의 어린 돼지의 경우 폐사율이 5%를 넘기도 해 농가 수익성에 부담도 컸다.

이번에 개발된 곤충사료는 어린 돼지를 위한 완제품으로, 20kg 단위 포장으로 공급돼 기존 사료를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 단계에서 요구되는 영양을 충족시키며, 6주간 사양시험 결과 시판 사료 대비 생산성이 8.6% 향상되고 사료 효율이 0.5 개선돼 같은 양의 사료로 더 큰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어린 돼지가 성장하는 시기에 마리당 약 3,200원의 사료비를 아낄 수 있어, 대규모 농가일수록 경영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기술원 박영욱 팀장은 “곤충은 미래 사료산업을 선도할 대체 단백질 자원”이라며, “이번 보급은 단순한 사료 대체를 넘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의 우수한 축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5년 충북 한우랑 브랜드 랑 축제’가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열린다.

이현진 기자

국회의원과 ‘국비 12조 시대’를 연다!

충청남도, 정책설명회 개최…내년 확보 대상 사업 설명·지역 현안 건의



충청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 개막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충남도는 4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책설명회에는 이재관·이정문·장동혁·성일중·황병선·이기구·강승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김태흠 지사, 박정주·전형식 행정·정부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설명회는 도정 현안 및 주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설명, 지역

현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정부예산 건의 29건 △지역 현안 및 주요 법안 21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주요 정책예산 확보 건의 사업으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건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 △백제고도 역사 문화도시 조성 전략 계획 수립용역 △지능형 센서 Spin-on 지원센터 구축 △그린반도체 공정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CCU 메가프로젝트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

터 조성 △성거-목천(국도1호) 건설 △국립청소년다임센터 충남 건립 등 29건을 설명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청양·부여 지천 기후대응팀 조성 △제2중양경찰학교 충남 설립 △미래자동차 인공지능 전환(AX) 대응 생태계 구축 △철강·석유화학산업분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후속조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내년 정부예산 목표를 12조 3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온 결과, 정부예산안에 전년도 정부예산 대비 1조 36억 원이 증가한 11조 9297억 원이 반영됐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며 협조와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공공시설물 하자근본 개선 나선다

시설물 공법·자재 개선 대책회의…시민 체감 품질 향상

충주시는 4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설물 공법 및 자재 개선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조길형 충주시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도로·건축·조경·녹지·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을 담당하는 각 분야 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로 파손, 상하수도 관로 침하, 조경시설 훼손 등 하자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공사비 절감 및 공정 단축이 자 발생에 미친 영향 ▲복합 공정 간 부서 협업 및 조율 부족 ▲하자 보수 관리 체계의 한계 등 현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팀장들이 실무 과정에서 직접 체감한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 본 시설 및 공법 개선 사례와 효과를 소개하며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했다.

충주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책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공법과 자재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도로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 하자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며,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김종만 씨가 제안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개선’과제가 차지했다. 투입구가 좁은 1.2리터 종량제 봉투의 너비는 넓히고 높이는 줄여 사용의 편의성을 추구하자는 제안이다.

이현진 기자

대전의 맛을 한 컵에! 컵라면 출시



대전시가 지역 대표 캐릭터 ‘곰돌이’를 활용한 신제품 ‘곰돌이 컵라면’을 9월 5일 본격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컵라면은 출시 후 약 80만 개가 팔리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곰돌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기획됐으며, 출시를 기념한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가 마련돼 지역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신제품 ‘곰돌이 컵라면’은 대전에서만 직접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컵라면 형태로, 목직한 국물과 조화로운 토핑을 더해 휴대성과 맛을 동시에 잡았다. 용기 디자인에는 대전 대표 캐릭터 곰돌이의 활기찬 이미지를 적용해 소장 가치도 높였다.

‘곰돌이 컵라면’은 매콤한 스프로 반율이 좋았던 쇠고기맛으로 우선 출시되며, 가격은 개당 1,900원이다. 제품은

대전역 3층 ‘곰돌이와 대전여행’, 곰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등 주요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 곰돌이하우스 2호점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신제품 시식 ▲곰돌이 포토존 ▲이벤트 참여자 굿즈·경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컵라면을 활용한 게임 연계 콘텐츠도 마련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곰돌이를 비롯한 곰씨캐릭터 굿즈 매출 증대가 주변 상권·관광까지 연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되고 있다.”라며 “지역 캐릭터와 로컬푸드가 결합한 대전만의 재미와 맛으로 관광·소비 선순환을 이끌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세종, 전문가에게 직접 배우는 감염병 예방

오는 9월 19일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하는 소통마당’ 개최…궁금증 해소 기회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단장 김성민)이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조치원 행복누림터(북합커뮤니티센터) 4층 대공연장에서 ‘2025년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하는 소통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대한 소개와 함께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 하던 감염병 예방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된다.

먼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정욱 교수가 ‘예방접종으로 챙기는 100세 시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성민 교수(감염병관리지원단장)가 ‘폭폭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꿀팁’을 주제로, 해외여행 시 꼭 지켜야 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전한다.

특강 후에는 김성민 교수를 포함한 감염병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소통마당은 무료로 진행되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감염병관리지원단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성민 단장은 “성인 예방접종과 해외 여행 감염병 예방법 등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무료로 진행되는 유익한 행사인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역 맞춤형 감염병 예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출범했으며, 단장인 김성민 교수와 연구원 등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세종시가 2025년 마을공동체 새싹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새싹교육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

심은 있지만 경험이 없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기초 교육과정으로, 지난 7월 참여자 20명을 모집하고 8월부터 3주에 걸쳐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전문 강사와 함께 공동체 기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계획해 보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돼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모두 15명의 교육생이 수료증을 전달받았다.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은 2025년 기준 5인 이상의 공익적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을 수료한 주민들은 2026년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게 된다.

이채봉 기자

Clean Water

SAMSUNG

더 깨끗하게, 더 맑게!

수자원 회복을 위한 삼성전자 반도체의 노력

하루에 약 **40,000t** 방류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 PLATINUM CERTIFIED

수달이 돌아왔다! 오산천 수생태계 복원에 힘쓴 삼성전자 반도체

수생태계가 악화되었던 오산천에 수달이 돌아왔다.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수생태계가 건강하고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과거 오산천은 건천화로 인해 생태계가 악화되고 악취도 났었다. 오산천 상류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는 2007년부터 오산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용수를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루에 약 4만 톤 정도의 물을 방류한 것이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수질 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고, 토종 물고기를 방류하는 등 꾸준히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취수량 증가 제로화 목표 선언! 국제수자원관리동맹 최고 등급 Platinum 인증도 취득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자연에서 가져오는 물의 양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취수량 증가 제로화 목표를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한 용수를 지속적으로 재이용하고, 사용한 물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기 위해 총 3단계의 폐수 처리 과정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는 화성캠퍼스, 기흥캠퍼스, 평택캠퍼스 등이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반도체는 정부, 지역사회, 관련업계 등과 수자원 보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수자원 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